

# 드라마 <송곳>의 기호학적 분석 :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중심으로

## A Semiotic Analysis of JTBC <Awl> : Focusing on Significance of Ideology

태보라\*, 최믿음\*\*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KBS 방송문화연구소\*\*

Bora Tae(98bol@dongduk.ac.kr)\*, Mideum Choi(aledma83@nate.com)\*\*

### 요약

이 연구는 사회적 갑을관계,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 임금 등 시의성 있는 사회 이슈를 다룬 웹툰 <송곳>을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 <송곳>의 스토리텔링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소쉬르가 제시한 계열체, 통합체 개념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서사적 구조와 인물 및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드라마가 사회적 이슈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는지, 어떠한 담론 요소를 구성하는지 알아보고자 작품 속에 투영된 이데올로기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비판적 다원주의(Critical Pluralism) 접근방식으로서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저항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드러났다. 둘째, 성역할, 영웅, 가족 이데올로기와 같은 고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이해와 상호이해, 이기적 편향 등의 인간 성찰적 이데올로기가 확인되었다.

■ 중심어 : |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 드라마 콘텐츠 | 기호학 | 이데올로기 |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semiotic analysis of drama <Awl>. Based on Paradigm, Syntagm concept, I apprehended the characteristics of descriptive structure of drama, characters and contemplated on ideology reflected in the drama. As a result, it has approaching method of Critical Pluralism which strongly exposes resistance ideology. The drama intensified Classical Ideology such as gender role, hero, and family ideology, also it consists of Humane Introspection Ideology such as self-understanding, mutual-understanding, and self-serving bias.

■ keyword : | Transmedia Contents | TV Drama | Semiotic Analysis | Ideology |

## 1. 서론

콘텐츠 OSMU 전략의 활성화로 인해 이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종미디어 콘텐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은 웹툰이 드라마, 영화, 연극, 단행본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로 재제작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 2007>, 원수연의 <메리는 외박 중, 2010> 등 초기의 웹툰 원작 드라마가 로맨스코미디 장르였던 것과 달리 최근의 웹툰 원작 드라마가 사회상을 반영한 소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4년 하반기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스

접수일자 : 2016년 01월 27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16일

교신저자 : 태보라, e-mail : 98bol@dongduk.ac.kr

토리로 최고시청률 8.2%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다중 미디어 전략에 편승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고찰한 최근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OSMU 형식 및 트랜스미디어의 산업적 전략재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3]와 둘째, 콘텐츠분석 및 개발에 관련한 연구이다[4-7]. 대다수 선행연구에서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전략방안과 콘텐츠 특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은 타 미디어로 확장될 때 각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며 기존 텍스트와 차별성을 지닌다[8].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기존 원 텍스트(urtext)의 주제와 개괄적인 서사구조를 유사한 맥락으로 구성하면서도 매체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디어융합(media convergence)현상이 지배적인 환경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사회, 정치, 문화 동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의미구성과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 텍스트 분석의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현실의 허구적 재연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9]. 드라마에 비취진 남성 우월주의, 학력 우선주의, 신데렐라 신드롬 등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이러한 원유이다.

2015년 하반기(2015년 10월 24일~2015년 11월 29일), JTBC에서 12부작으로 편성하여 방영된 드라마 <송곳>은 원작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이 시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송곳>은 비록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진 못하였지만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 스토리 등 전체적인 작품성에서 ‘웹메이드’ 드라마라는 평을 받으며 마니아층을 확보했다[10].

이 연구는 <송곳>이 사회적 갈등관계 및 비정규직, 노조, 부당해고 등 현시점의 사회적 갈등 이슈를 소재로 다루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합체 분석을 통해 서사적 구조와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요 인

물들의 갈등관계를 파악하고, 계열체 분석을 통해 이항대립 구조를 살펴보았다. 또한 콘텐츠에 내재되어 있는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지배 계층과 저항 계층의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동시에 이데올로기 간 투쟁을 그린 드라마 <송곳>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 시점에 시의적절한 논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드라마의 기호학적 분석

초기에는 언어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기호학적 분석은 이제 영화, 드라마, 연극, 만화 등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에 도입되어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적 틀로 활용되고 있다[11][12]. 이 연구는 드라마 <송곳>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 1. 계열체적 구조와 통합체적 구조

소쉬르(Saussure)의 관점에서 기호는 의미와 관념의 개념인 ‘의’, 그리고 의의를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기표’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기호 전반의 구조적 체계에 주목한다. 또한 기표와 기의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의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그 과정은 자의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소쉬르는 또한 의미가 기호 표현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체(Syntagm) 개념과 계열체(Paradigm) 개념을 제시하였다.

먼저 계열체 개념은 유사한 성질이나 특징을 지니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분리할 수 있는 단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일컫는다. 다음으로 통합체는 계열체의 단위들이 복합적으로 조합되며 스토리로 형성되어 다양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소쉬르의 주장에 따르면 계열적 관계는 기능적인 대비와 차별성을 포함하며, 통합적 관계는 각 요소들의 결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13]. 예컨대 <모드의 체계>를 통해 의복체계를 계열체적 요소와 통합체적 요소로 구분한 바르트(Barthes, 1967)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의 계열적 요소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입혀진 것이

다른 부분에 동시에 입혀질 수 없는 것들'로 설명되었고, 통합적 요소들은 '모자에서 신발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각 요소들의 병치'로 설명되었다[13]. 덧붙여 바르트는 계열체와 통합체가 분리되어 분석되어서는 안 되며 텍스트를 최소 단위로 나누고(계열체), 최소 단위를 묶어 통합적 관계(통합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신화의 생산

바르트(Barthes)는 구조주의적 언어 기호 체계를 시각적 이미지와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 체계에 적용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14]. 특히 바르트는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거론된 개념들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이나 다양한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기호체계가 사회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신화가 형성된다고 여긴다. 여기서 신화란 인류의 탄생과 종말과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화는 의미 생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코드를 일컫는다. 즉 바르트는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인 부가 의미(supplementary meaning) 체계를 파악하는 도구로써 신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14].

예컨대 바르트의 신화론(Mythologies)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통념과 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일련의 의미작용의 양식을 신화라 본다. 즉 2차적 의미과정에서 생긴 신화는 자연스럽게 한 사회 및 집단 등의 가치나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이데올로기, 신화를 활발히 분석하는 이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비판적 시각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정신적 생산물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의 대표적 유형인 텔레비전 드라마를 한 편 선정하여 드라마에 담겨 있는 기호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가 생산한 정신적 생산물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드라마가 표출하고 있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화를 살펴볼 것이다.

## III. 드라마 <송곳>의 구조적 분석

수직적·일방향적 상하지시 관계, 갑을관계, 비정규직, 노조파업 등 직장인들의 사회적 갈등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 <송곳>에 대한 통합체 분석, 계열체 분석을 통해 주요 서사구조와 인물 간 갈등, 이항대립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1. <송곳>의 통합체 분석

#### 1.1 <송곳>의 서사적 구조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부진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은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 반면 이성적이고 매사 철두철미한 성격을 지닌 마트의 야채청과 파트 과장 이수인은 회사의 부당한 직원해고 요구를 거부한다. <송곳>은 위의 두 사람이 이수인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에 대항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파헤치며 다양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조명한다. 작품전반의 회차별 서사 흐름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송곳>의 서사적 흐름

회차	주요단어	서사내용
1회	임금체불, 해고지시	구고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받아줌 이수인, 정부장으로부터 판매사원 해고 지시 받음
2회	산재처리, 지시거부	구고신,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도움 이수인, 직원들과 소원한 관계 & 해고지시 불응
3회	노조현장	이수인과 노동상담소 구고신의 만남
4회	해고대상	황준철, 협력업체의 접대사건으로 해고위기
5회	징계위원회	황준철, 징계위원회에서의 극적해명
6회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결속과 회사의 회유와 협박
7회	근로계약	회사와의 본격적인 갈등시작
8회	월급삭감	조합원의 월급 삭감
9회	피켓시위	지노위의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재심신청
10회	인사이동	새로 온 고과장의 이간질로 인한 직원들의 분열
11회	노조파업	본격적인 파업시작
12회	직장폐쇄, 협상	파업과 직장폐쇄, 협상과 또 다른 국면의 시작

총 12화로 구성된 드라마 <송곳>은 주인공 이수인과 구고신, 주변인물의 다양한 갈등과 해결과정을 그려내며 서사적 구조의 특성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이수인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집 배달원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아내는 상황,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미화원을 돕는 과정, 마트 직원 황준철의 결혼준비 및 개인상황, 부진 노동 상담소의 문소진이 노조에 가입하게 된 배경, 상담소에서 만난 차성학이 근무하는 버스회사의 노조상황 등의 다양한 인물들의 일화를 고루 삽입하여 복합적 서사를 보여준다.

또한 일화적 구성(episode configuration)의 서사구조와 더불어 이수인의 유년시절과 군대이야기, 구고신의 젊은 시절 일화, 정민철 부장의 신입시절 이야기, 마트 직원 주장민과 황준철의 학창시절 이야기 등 주요 인물들의 회상장면이 다수 삽입되면서 단순 시계열적 평면 구조가 아닌 입체적 서사구조라는 특성을 보인다.

### 1.2 인물의 갈등구조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며 여러 고용주와 갈등을 겪고, 이수인은 직원의 해고지시에 불응하여 회사 내 상사와 갈등관계에 놓인다. 또한 외국 계열 회사인 푸르미 마트의 직원들과 관리직 및 임직원 사이의 갈등구조 역시 지속되며, 후반부에는 두 주인공인 구고신과 이수인 역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인공 이수인의 내적갈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직원, 즉 노동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불협화음 및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의 지속이다. 노동자들의 갈등구조는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 유발됨과 동시에 조직내부나 개인이 갖고 있는 내적 갈등요인에 의해 야기된다.

따라서 <송곳>의 서사적 구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의 갈등요인은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부와 직원관계 갈등의 외부적인 요인은 시계열적 사건의 양상에 따라 해고지시→노동조합 탄압→월급삭감→간부의 이간질→과업저지 등으로 변한다. 주인공 이수인의 내부적 갈등요인은 노동자들의 불협화음 속 자신의 감정적 동요에서 기인하며, 대부분 군대시절의 경험적 일화를 통해 회상되고 인지된다. 작품 속 회상장면은 회당 평균 세 신(scene)이 삽입되었는데, 인물의 내적 갈등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등장인물 간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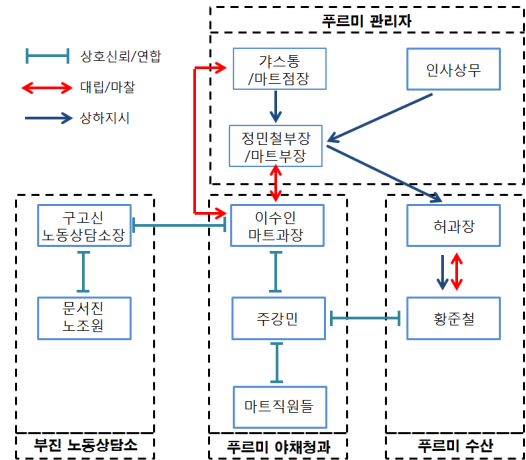


그림 1. 등장인물관계도

### 2. <송곳>의 계열체 분석

두 주인공인 이수인과 구고신은 유사한 사상을 지니고 있지만 세부적인 인물의 성격과 특성은 차이를 보인다. 이수인은 이성적, 비판적, 비타협적이며 구고신은 감성적이고 일부 현실타협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반면 주 갈등관계인 임직원과 일반직원 사이에는 극명한 특성차이를 보인다. 권력의 상부구조에 있는 인물은 주로 남성이었으며, 현실적, 이성적, 권위적인 특성을 보였다. 권력의 하부구조에 있는 직원은 주로 여성이었으며, 감정적, 비주체적인 특성을 지녔다. 그러나 사회적 권력구조가 갖고 있는 고정적 관념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으며, 탈 권력구조를 지향하는 저항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임원 및 관리직과 일반 직원의 성별 구도가 남성과 여성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며 고전적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또한 주인공 이수인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행동과 일반 직원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의 대조를 통해 기존의 영웅 이데올로기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고전적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영웅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강화하며 현실적인 사회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재현해낸다.

서사구조 속의 일화적 소재를 비교해보면 이수인과 대다수의 직원들, 일부 관리직 직원들은 행동 및 인지 변화의 계기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찾는다. 이상적인 삶의 추구에 대한 원동력과 궁극적인 목표를 ‘화목한 가정’으로 설정하며 고전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한편 두 주인공 이수인과 구고신의 회상장면은 중요한 계열체적 의미를 지닌다. 이수인의 군대시절 회상과 구고신의 취조실에서 경험회상 장면에는 권력에 대한 저항의지와 사회구조의 모순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 저항과는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해석이다. 작품 속 회상장면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갈등이 야기된다고 당연시 여겨왔던 문제들이 단순히 비합리적인 권력과 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동시에 발현되어 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직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끊임없이 겪었던 중간 관리자 정민철 부장의 입사시절, 위기 및 승진과정, 현재상황과 갈등을 담은 다양한 일화들은 그의 일생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인간사일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누구나 정부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직원, 정부장 및 다양한 사람들이 마찰을 겪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대인들의 이기적 편향의 사고방식을 그려낸다.

#### IV. 담론과 신화적 이데올로기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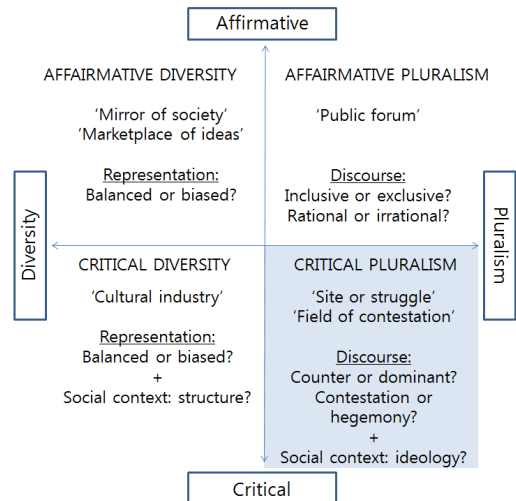
##### 1. 비판적 다원주의(critical pluralism) 이데올로기:

###### 비판과 저항-갈등관계, 노동자 권익

드라마 <송곳>의 서사적 구조의 통합체 분석과 이항 대립의 특성을 비교한 계열체 분석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저항 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권력에 대한 저항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불만은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 논쟁을 유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다니엘과 피테르(Danielle & Pieter)는 미디어 다원주의의 네 가지 접근법 중 비판적 다원주의(critical pluralism)에서 논쟁 및 헤게모니를 포함한 사회적 맥락의 이데올로기가 담론화된다고 보았다 [15]. 구체적으로 다니엘과 피테르(Danielle & Pieter)는 ‘긍정/비판’, ‘다양성/다원성(다원주의)’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디어 다원주의를 ‘긍정적 다양성’, ‘비판적 다양성’, ‘긍정적 다원성’, ‘비판적 다원성’으로 구분하였다([그림 2] 참조).

긍정적 다양성은 미디어가 사회의 이질성을 존재하는 그대로 반영하여 표현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징에 기인하여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mirror of society)’로 개념화된다. 반면 긍정적 다원주의는 미디어가 사회적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접근법이다.



\*색칠된 부분이 드라마 <송곳>의 비판적 다원주의 이데올로기 영역임

그림 2. Four approaches to media pluralism

한편 비판적 다양성은 미디어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다양성 접근법과 다르지 않다. 다만 비판적 다양성은 사회가 경제 구조를 비롯한 불평등한 구조 위에서 개념화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불평등이 미디어 재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여긴다. 미디어를 ‘문화 산업’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다원주의 접근법은 미디어를 투쟁의 장, 혹은 논쟁의 장으로 묘사한다. 이 접근법은 미디어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담론적 논쟁을 다루며, 사회는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고 재생산된 이데올로기적 갈등, 논쟁, 투쟁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송곳>은 기존 권력 구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응, 저항하는 비판적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2. 고전적 이데올로기: 성역할, 영웅, 가족

성역할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단순히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구적 시각의 남성 우월주의와 동양권의 남존여비 사상은 우리가 남성 중심 역할의 사회문화적 체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송곳>에서도 직위에 따른 성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구체적으로 주요 보직과 의사결정권자의 대부분을 남성으로 설정하고 하위 노동자와 비정규직 인원을 대다수 여성으로 그려냄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구현해낸다.

고전적인 성역할의 연장선으로 기존의 영웅적 서사에서도 영웅적 인물은 주로 남성으로 재현된다. <송곳>에서도 주요 인물은 ‘영웅화’ 시키는 요소가 끊임없이 작용한다. 주인공인 이수인과 구고신은 남성적, 적극적, 자기 주도적이며 정의로운 사명감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또한 사회적 주류에게 지배당하는 타자(others)로 형상화된 일반직원들의 부당한 처우개선과 권익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며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러한 모습은 타자에게 영웅 혹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의 영웅서사와 <송곳>에서 발견된 영웅서사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송곳>의 주인공들은 완벽한 영웅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오히려 서투르고, 불안정하고, 미흡하며 때론 독선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의 영웅을 통해 현실에 존재할 법한, 혹은 간혹 존재하는 현실적 영웅의 이데올로기를 담아낸 것이다.

한편 등장인물이 지닌 캐릭터의 선과 악, 지위의 높낮음을 막론하고 인물의 주제적 행위라 여겨지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각자의 가족과 연계되어 있다. 즉, 대다수 인물들은 행위의 동기를 가족과의 관계성에서 찾는다. 존재가치에서부터 사회생활의 영위, 금전적 안정에 대한 욕망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가족과 연계시킴으로써 개인은 가족과 상시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가족집단이 사회체계 질서 유지의 유용한 구성요소로 인식되며 부각된 가족 이데올로기는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더욱 중요시 여겨졌다. 현재는 1인 가구, 무자녀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구가 출현하며 가족개념이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이나 <송곳>에서는 변화된 가족개념이나 인간의 개별성보다는 고전적 가족집단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서사를 이끈다. 다수의 등장인물이 지닌 내적갈등과 구체적 행위의 원동력은 가족과의 상호적 관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고전적 가족중심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 3. 성찰적 이데올로기: 자기이해와 상호이해, 이기적 편향

주인공 이수인과 구고신은 사건의 표면적 해결성공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건의 해결과정에 주목하고, 인간의 본질 및 상호관계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며 각자의 과거 회상을 통한 성찰을 지속한다. 주인공들의 경험회상은 인간의 기본적 심리를 투영하며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힌다. 이를 통해 인간의 무의식과 본질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산업화 이후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함께 무한 경쟁 문화가 확산되었고, 사회·경제적 성공이라는 정형화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물질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삶의 패턴이 만연했다. 그러나 최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원론적 관심이 높아지며,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드라마 <송곳>에서는 주인공 이수인의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관계 속 구성원간의 상호이해(mutual-understanding)를 고찰한다. 구고신의 경우에도 노동집회를 하며 생명을 잃게 되는 동료나 본인을

고문했던 고문관에 대한 경험적 회상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작품 속에 나타난 자기이해와 상호이해는 궁극적으로 나와 타인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갖고 인간본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되며, 단순히 결과나 목적지향의 인간관계보다 유대 및 상호협력력을 우선시하는 관계를 지지한다.

한편 드라마 <송곳>에서는 편파적으로 본인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의 인물이 대거 등장한다. 권력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조가입자, 비정규직 등 권력의 하부구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상황에 따라 이기적 편향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낸다. 때로는 이러한 이기적 편향의 욕구들이 나아가 집단 중심적 편향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는데 이 장면들 역시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권력과 지배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저변에 '인간의 본성탐구'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인간에 대한 성찰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아보기 위해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비판적 다원주의 영역에서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났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논란'의 다양한 사건들과 맞물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에 반(反)한 정서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갑과 을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현실의 재연을 통해 현 시대상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의 비판적 다양성(Critical Diversity)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배 계층과 저항 계층의 투쟁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논쟁 속에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성하고자 하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둘째, 일부 고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먼저 임직원 및 간부 대부분은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주도적 역할은 남성이 차지하는 등 사회적 체제의 남성 역할중심 및 권위주의적 전통의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은 기존의 영웅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며, 다수의 등장인물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가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모습을 통해 고전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보여주었다.

드라마 <송곳>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이데올로기만을 담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실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도록 노조활동이 미화된 장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을 배경으로 시작된 서사적 구조는 현시대의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문제점들을 고찰하며 성찰할 수 있는 담론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성장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 콘텐츠 연구 및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권력층의 비합리적 갑을관계 사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이해하고, 드라마가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노동개혁 법안의 세부적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쟁점이 대두되는 현시점에 다각적으로 재현된 현실에 마주할 수 있게 하며, 시대적 논쟁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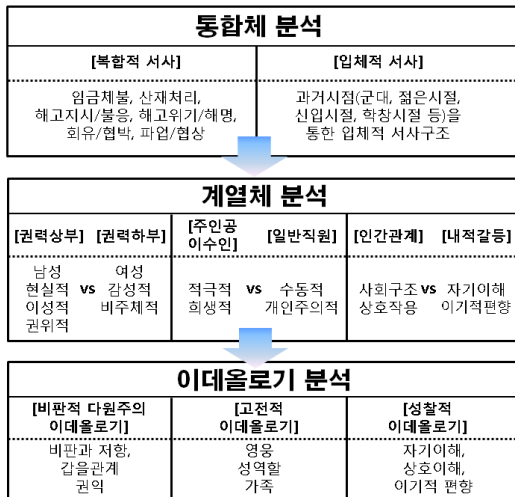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의 함의 도식화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드라마 <송곳>에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알

그러나 작품의 특수성과 의미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기호학적 분석 외에도 영상언어의 기술적 코드 분석과 신(scene)별 분석, 영상 텍스트 코드 분석 등이 추가되어 작품의 영상미학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드라마와 같은 허구적 텍스트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개별 코드(서사구조, 등장인물의 유형), 이데올로기적 코드 외에도 장르 코드, 문체 코드, 상호텍스트적 코드 등이 해독 과정에 매개되어 있다[16]. 산업, 제작자, 수용자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장르 코드와 드라마가 표현되는 형식이나 문체를 의미하는 문체 코드 분석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영상분석이 추가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김수철, 강정수, “케이팝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대한 고찰,” 언론정보연구, 제50권, 제1호, pp.84-120, 2013.  
 [2] 유제상, “트랜스미디어와 사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1권, pp.185-209, 2015.  
 [3] 임종수, “방송콘텐츠의 OSMU 활용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pp.35-64, 2007.  
 [4] 남정은, 김희경,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0권, pp.23-49, 2015.  
 [5]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미생>의 가능성과 한계,” 語文學, 제128권, pp.277-308, 2015.  
 [6] 신동희, 김희경,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 스토리텔링과 개념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180-189, 2010.  
 [7] 정일형, “<미생>을 통해 본 비주얼 구성요소의 공간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제19권, 제1호, pp.281-307, 2015.  
 [8] H. Jenkins,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Media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 Press, 2006.

[9] 백선기, 김승희,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드라마 이즘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10권, pp.157-195.  
 [10]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 ew&idx=846995>  
 [11] 허진, “시각기호의 의미작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 범주에 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94-101, 2012.  
 [12] 권경민, “만화분석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7호, pp.68-76, 2007.  
 [13] 오장근, “소쉬르의 기호학적 전통과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불면증’을 대상으로 한 기호학적 분석 가능성,” 기호학연구, 제21권, pp.311-331.  
 [14] 조창연, “디지털 시대의 제품 의미 생성 작용에 대한 광고 기호학적 접근: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과 그 관점을 넘어서,” 기호학연구, 제12권, pp.244-285, 2002.  
 [15] R. Danielle and M. Pieter, “Media, pluralism and democracy: what’s in a name?,” *Media, Culture & Society*, Vol.37, No.7, pp.1042-1059, 2015.  
 [16] 주창윤, *영상이미지의 구조*, 나남, 2015.

**저 자 소 개**

태 보 라(Bora Tae)

정희원



- 2004년 8월 :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석사)
  - 2012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조교수
  - 2007년 6월 ~ 현재 : 극단 디캐츠 공동대표
- <관심분야> : 방송영상 콘텐츠, 연극영화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최 밈 음(Mideum Choi)

정회원



- 2010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2015년 6월 ~ 2016년 5월 : KBS 방송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 2015년 3월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강사

<관심분야> : 미디어 수용자, 방송 및 영화산업, 뉴미디어콘텐츠